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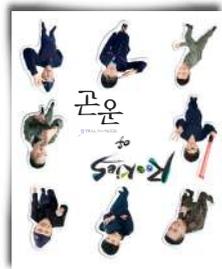
# Rookies

of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 공군





COVER STORY

표시용(왼, 뒤) 권재기 | 프리랜서 사진작가  
Rookies of 공군

- 18 기획특집 Rookies of 공군
- 30 Photo Sketch Red Flag 대한민국 공군의 근거지를 휘날리다!
- 34 포트포레임@AF
- 36 AIR FORCE MONTHLY 2012. 03. NEWS
- 38 생각하는 그림 말이 없으면 문장을 안 씁니다

- 06 Pioneers up above 롤러링 '투리' 미션
- 08 World-Wide Vision Up All Night
- 12 Global AF Operation Unified Protector
- 16 Leadership+ 하이퍼포머와 포침



18

공군IN

06

GLOBAL & INSIGHT

## CULTURE 36.5

# 42



- 42 Hollywood English WAR HORSE
- 44 인생은 아름다워 은장미의 전령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 46 Art in Everyday 여행을 떠나요
- 48 Air-Supply 오디션에 도전하자!
- 50 Preview 3월의 문화행사

## OPINION

# 52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1월호를 읽고서
- 52 독자기고 하늘과 공군사랑 40년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는 한
- 54 Health Diary 비만관리, 건강한 공군인의 시작!
- 56 책마를 이야기, 자연과 인간의 공통점

## MONTHLY MAGAZINE

### VOL. 405. 2012. 03

발행일자 2012년 2월 29일(통권 제405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 1월호를 읽고서

##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바로 **패션**이다. 훈련소에서 자대로 그리고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다보니 벌써 군생활도 16년째입니다. 저와 함께한 전투복도 만무늬부터 현행전투복,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디지털전투복과 게리슨모까지, 우리 공군의 멋을 한층 UP시켜줄 '제복의 변신'은 패러다임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우리 공군과 공군의 대표자인 월간 「공군」과 닮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군장병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연재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충북 청원군, 김동훈

02 월간 「공군」은 **정초**이다. 제15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공군인입니다. 공군인으로서 같은 공군병사들의 생활과 공간대를 느끼면서 겨울에 느낄 수 없는 푸른 봄의 향기를 월간 「공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년호에서는 <기획특집> '공군 60년 복제사, 어제의 옷장을 열다!'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군복제변천사를 보면서 우리 공군의 복제가 전통과 역사를 가진 복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항상 공군병사로서 월간 「공군」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 경기 성남시, 권찬혁

월간 「공군」은 **명품**이다. 장인의 땀과 노력으로 최고의 명품이 탄생하듯이, 공군 또한 전투기 한 대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많은 장병들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신년호에서는 <기획특집> '새 옷 입은 공군'이 재미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제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상징성, 실용성을 모두 갖춘 공군 복제의 이미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강원 강릉시, 김효정

04 월간 「공군」은 **간식**이다. 매달 월간 「공군」을 받아서 관물함에 꽂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기사 한 두 개씩을 읽습니다. 하나, 둘 읽다보면 어느새 다 읽고, 간식처럼 어느새 다음호를 기다리게 되니까 말이죠. 월간 「공군」이라는 간식 덕분에 오늘도 군생활이 든든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무래도 <기획특집> '새 옷 입은 공군'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비록 저는 올해 전역해서 입어보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제복을 입고나오는 후배장병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워질 것 같습니다. - 경기 평택시, 박윤수

월간 「공군」은 **새로움**이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층 더 새롭고, 한층 더 스마트해진 공군 제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언제나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입니다. 새롭게 변한 공군제복이 공군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달 더 다양하고 새롭게 변하는 「공군」지에 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약속드립니다.  
- 울산 북구, 김휘곤

06 월간 「공군」은 **도서관**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잘 정돈된 지식과 정보, 이야기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도서관 관처럼 「공군」은 내게 부담 없이 다가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Hollywood English>의 '머니볼'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어렵고 두렵지만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 충남 계룡시, 양준영



# Global & Insight

Pioneers up above 윌리엄 '빌리' 미첼

World-Wide Vision Up All Night

Global AF Operation Unified Protector

Leadership+ 하이퍼포머와 코칭



# 윌리엄 ‘빌리’ 미첼

William Lendrum “Billy” Mitchell,  
(1879.12.28 ~ 1936.2.19)

## 공군 독립을 부르짖은 항공력의 십자군, 미 공군의 아버지

“미래의 전쟁은 공중에서 시작되고, 지상에서 종료될 것이다.”  
“공중우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격렬한 공중전투를 치러야 한다.”  
“핵심 중심부(vital center)를 공격하려면 전투기의 엄호가 필요하다.”  
“전략적 항공력은 핵심 중심부를 강타함으로써 가능한 최소의 손실로 적에게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 수단이다.”

미국 공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빌리’ 미첼은 1879년 부유한 위스콘신 상원의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밀워키에서 자라 조지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미첼은 미국-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1898년 미 육군 병사로 입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신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항공기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진 미첼은 1916년, 38세의 나이로 비행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된다.

1917년 4월, 미국은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유럽에서 임무 중이던 미첼 중령은 파리로 달려가 항공단을 결성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전투 전략을 학습한다. 프랑스군 조종사와 함께 독일 상공을 비행한 미첼은 곧 미국 항공단의 항공작전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 그는 열정이 넘치는 정령가로서 인정받았고, 곧 준장으로 승진해 프랑스에 있는 미 항공단의 단장이 되었다.

그는 머지않아 항공단이 육군 및 해군과 동등한 수준의 공군으로 독립할 것이며, 미래전쟁은 항공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항공전략사상은 곧 육군지휘부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전쟁이 종료되자 사람들은 미첼이 미국의 항공단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엉뚱하게도 포병장교가 단장으로 임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항공단을 예하에 두고, 지속통제하려는 육군지휘부의 전략이었다. 미첼에 대한 견제도 강화됐다.

1920년 6월, 의회는 군을 개편하여 항공병과를 보병, 포병에 이은 3대 병과로 자리매김했다. 1921년 3월, 워렌 하딩 대통령은 미첼을 항공참모부 차장으로 임명하였다. 미첼은 의회의 공군 관련 법안들에 의해 고무됐는데, 해리 뉴 상원의원은 1919년 8월 공군 독립법안을 제출했다. 분위기를 감지한 육·해군지휘부는 미첼을 더욱 경계하였다. 미첼은 “항공기로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다.”면서 전함 1척 값이면 항공기 1천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미첼은 항공력에 부정적인 국방지도부를 비판하면서 항공기를 산발 진화, 국경 감시, 인원 수송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대륙횡단비행 경연대회를 창설하고 국경감시정찰비행을 실시하는 등의 비행활동을 적극 고무시켰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최고속도, 최장거리, 특수기동 등의 비행기록들을 끊임없이 갱신하도록 격려하면서 항공기가 뉴스의 초점이 되도록 진력하였다.

1921년 2월, 미첼은 항공력으로 전함을 격침시키는 시범을 기획, 추진하였다. 5월 1일, 랭글리기지에 125대의 항공기와 1,000명의 장병들로 구성된 6개의 비행대대로 제1항공여단을 창설하고, 세부적인 폭격기술은 소련에서 망명해온 알렉산더 세바스키에게 일임하였다.

7월 21일, 드디어 국방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폐전함 오스트프리슬랜드호 폭격시범이 시작됐다. 미첼은 폭격대를 지휘하여 1,100파운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빌리 미첼

폭탄 6발과 2천 파운드 폭탄 1발로 그 거대한 전함을 격침시켰다. 첫 폭탄이 폭발한 지 22분 만에 오스트프리스랜드호는 거친 거품과 함께 침몰했다. 이 실험은 해군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성과도 나타났다. '국가를 방위하는데 항공력은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미첼의 보고서는 정가에서 대대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항공력 증강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하딩 대통령은 해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해군과 육군지휘부는 미첼의 보고서를 폄하하며 사장시키려 했지만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미첼의 직속상관이던 항공참모부장 찰스 메노허 장군은 미첼에게 실험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장관의 지지 하에 미첼은 실험을 계속하였고, 결국 메노허 장군은 사임하고 말았다.

새 항공참모부장에 임명된 메이슨 패트릭 소장은 미첼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결정은 자신이 내린다는 원칙으로 직무에 임했다. 패트릭 장군은 해군과의 격론이 예정됐던 '해군 무기제한 회의' 기간에 미첼을 유럽주둔 미군 감찰관으로 파견하여 자리를 비우게 했다. 1922년 미첼은 이탈리아에서 줄리오 두헤를 만나 항공력사상에 관해 토론하였고 두헤의 '제공권'을 번역하여 미 국방부 내에 배포하였다.

1924년 미첼은 다시 감찰관으로 임명되어 하와이와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이는 미첼을 언론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패트릭 장군의 인사조치였다. 기간 중 미첼은 일본의 진주만 침공을 정확하게 예견한 '일본과의 미래전'을 저술하여 공습에 무기력한 항공모함들을 적나라하게 기술했고, 이는 18년 뒤 진주만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미첼은 또한 군용 항공기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항공산업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925년 8월, '항공력에 의한 방어(Winged Defense)'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책은 미첼이 군법회의에 회부된 1926년 1월까지 약 4,500권이 판매되었다.

미첼은 군 지도부와 강하게 부딪혔다. 전쟁성은 항공사령부 창설을 지지했지만 육군과 해군지휘부는 미첼의 주장을 허황된 망상이라고 무시하면서 미첼을 매장시키려 했다. 1925년 3월, 미첼은 항공참모부 차장직 임기가 끝나자 대령 직위인 텍사스의 육군항공단 항공장교로 좌천되었다.

해군에서 14명이 사망한 세난도호의 침몰사고를 조사한 미첼은 해군 및 육군지휘부가 국방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해 10월 25일, 미첼은 상관모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11월 초에 시작된 재판은 7주나 계속되었다.

1926년 2월 1일, 미첼은 사표를 던졌다. 이후 10년 여간 그는 저술과 강연에 주력했다.

미첼은 1926년 버지니아 미들버그에 복스우드팜을 짓고 부인과 함께 여생을 그곳에서 지냈다. 그는 1936년 2월 19일 복합병 증세로 뉴욕시에서 별세했고, 고향인 밀워키의 포레스트 홈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미첼의 아들은 육군중위로 근무하다 1942년에 사망했고 미첼의 사촌 조지 크로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 발발하던 날 캐나다의 초대 공군참모총장이 되었다.

미첼의 전략사상은 사후에 더욱 빛을 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전함들이 항공기의 공격으로 격침되었다. 콩 디 까부, 아리조나, 유타, 오클라호마, 프린스 오브 웨일스, 로마, 무사시, 티피즈, 야마토, 실스빅-홀스타인, 임페로, 린노스, 키르키즈, 마랏트, 이세, 휴가 등 모두 항공기의 공격으로 침몰되었거나 파괴되었다.

미첼은 사후에 공적을 인정받아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소장으로 추증되었다. 또한 1941년에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딴 전폭기 B-25가 미첼기로 명명되었다. 미첼기는 1천여 대가 생산되었고 1942년 4월 지미 두리를 중령은 미첼기 16대로 폭격대를 구성하여 동경폭격작전을 감행하였다. 1943년에 제작된 영화 'A Guy Named Joe'는 빌리 미첼의 스토리였다. 1946년 미 의회는 미첼에게 의회금메달을 추증했다. 1955년 미 공군협회는 미첼의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아들 윌리엄을 내세워 공군에 진정서를 냈지만 공군은 미첼의 불명예 퇴직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판결무효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군협회는 또한 빌리 미첼 항공력연구회(General Billy Mitchell Institute for Airpower Studies)를 설립하였다. 1955년에는 '빌리 미첼과 군법회의'라는 영화가 제작됐고, 1959년 미 공군사관학교는 생도식당을 미첼 홀로 명명했다. 1966년 미첼은 항공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1971년 밀워키에 빌리 미첼 스코티쉬 파이프-드럼 악단이 창설됐다. 미첼의 이름을 딴 공항, 도로 및 교량도 건설되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윌리엄 미첼 홀을 건축했고 민간항공순찰대는 빌리 미첼 상을 제정했다. 공군군악대는 1960~70년대에 빌리 미첼의 스코틀랜드 문양을 새긴 유니폼을 지정했고, 1999년 미첼 장군은 미국 우표인물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 의회는 미첼의 육군소장 승진을 재의결했고, 2005년에 대통령이 인준했다.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2년에 했던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대적 사명감으로 공군을 독립시키려 했던 빌리 미첼과, 끝없이 밀고 올라오는 항공력 앞에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군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 급급했던 육·해군 지휘부들과의 밀고 당기던 게임은 결국 1947년 미 공군이 독립함으로써 미첼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국방지도부가 덮으려했던 미첼의 불굴의 항공전략사상은 그가 안식한 후에 오히려 더욱 강렬히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F**



오스트프리스랜드호의 격침 모습



# Up All Night

고요한 밤에도 기지 근무는 계속된다.

The base is predictably quiet at night, but work continues.

소방대원들이 화재훈련장에서 시뮬레이션 항공기 화재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어둠이 찾아올 무렵, 아리조나 주에 위치한 Luke 공군 기지의 소방대원들은 훈련을 마친 후에도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신호가 언제 울릴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콜로라도 주의 Peterson 공군기지에서는 21 작전지원대대의 기상대 전문요원들이 내일기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같은 시각 다른 지원요원들은 Peterson 기지통제센터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Luke 공군기지의 소방대원들에게는 밤에도 위급 상황을 울리는 경보가 수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울리는 광경이 낯설지 않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아리조나 주 West Valley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통계전문가들이 ‘기지 내, 두 건 이상의 위기상황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Luke 기지에서 근무를 해보

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56시설대대 소방지원대 소속 B팀에서 작전운영 팀장을 맡고 있는 데이브 기븐스(Dave Givens) 팀장이 말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모두가 퇴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하죠. 또 기지 외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어 불의의 사고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인 Luke 기지의 소방대원들은 아침 7시에 하루를 시작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오후 4시 이후, 업무의 우선순위는 위급상황에 대응하는 것으로 바뀐다. 소방지원대 A팀의 작전운영팀장인 션 웰본(Shawn Welborn) 중사에 따르면 Luke 기지의 소방대는 전 공군기지 중에서도 가장 바쁜 부대 중 하나이며, 2011년에는 1,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아리조나 주 Luke 공군기지의 소방대원인 조셉 리베라(Joseph Rivera) 중사가 화재훈련에 참여하는 모습



소방대원인 테일러 슈버트(Taylor Shewbirt) 병장이 시뮬레이션 항공기 화재진압을 위해 1,500 갤런의 물대포를 운용하는 모습



케빈 포트(Kevin Fort) 병장이 실전 화재 훈련 중, 1,500 갤런의 물을 저장한 소방차를 운전하는 모습



위급상황에 대기하는 도중, 소방대원들에게 생기는 자투리 시간은 각자의 취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소방요원들은 오래된 락커룸을 변경한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일부는 공부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보가 울리게 되면, 모든 것들은 급히 전환된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한 후, 보통 30분 정도는 지나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즉시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 대면하게 될지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Welborn 중사가 말했다.

모두가 잠든 밤, Luke 공군기지의 밤 역시 마찬가지로 조용하다. 하지만 일부 특정한 곳 -비행장 지역, 숙소 등- 들은 낮 시간대와 다를 바 없이 활동적이다.

“아무리 밤이라도 기지 내 주기장에서는 항공기가 움직이고, 정비작업이 진행됩니다.” 기브스 팀장이 말한다. “임무 특성 상, 또는 기상조건으로 인해 늦은 밤에도 비행은 계속되죠. 야간에 긴급신고를 받고 나가게 되면, 활주로에 파란 불빛의 항공기유도 조명이 눈에 가득 들어와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자신의 위치와 긴급상황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몸이 피곤해 판단력이 혼미해질 수 있으니, 활주로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야간업무의 위험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소방대원. 그러나 그들은 일반 교대근무에 비해 오히려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고가 단 한 건만 있는 날이라도, 다시 잠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웰본 중사의 말이다. “사고가 여럿 발생하는 정신없는 날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이 가치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구조했을 때 그 느낌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AF

리처드 더스킨(Richard Durskine) 하사가 시뮬레이션 항공기 화재 훈련을 위해 훈련장에서 서 있다.

# Operation Unified Protector

민주주의를 위하여! 리비아 항공전(2)

○ 미 해군과 영국 해군 함정에서 10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어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공격했다.

## 팬암항공기 폭파사건

미군의 엘도라도 협곡 작전에 분개한 카다피는 미국을 겨냥한 대형 테러 사건을 일으킨다. 1988년 2월 21일,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던 미국 팬암 항공 소속 보잉 747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여 탑승자 259명 전원이 사망하고 기체 잔해로 지역주민 11명이 사망했다. 자칫 미공에 빠질 뻔 했던 이 사건은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리비아 정보요원이 카세트 녹음기에 장착한 폭탄을 터뜨려 팬암기를 폭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에 이들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다피는 이들의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병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UN은 지난 1992년부터 리비아에 대해 경제제재에 들어갔고,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미국, 영국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리비아의 대처가 계속되었다.

##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에 나선 카다피

결국 벨스 만델라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제3국인 네덜란드에서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조건에 리비아와 미국과 영국이 동의하게 된다. 1994년 4월 용의자 2명의 신병이 인도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카다피는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한다.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이라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리비아가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선언했다. 또한 팬암항공기 폭파사건에 대한 리비아의 책임을 시인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제의한다. 이를 통해 2004년 미국과 외교관계를 복원시켰으며, 미국은 2006년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2008년 9월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장관이 리비아를 방문하여 카다피와 회담했다. 이를 통해 UN의 대 리비아 경제제재는 해제되었고,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 '재스민 혁명'의 꽃씨

튀니지를 대표하는 꽃인 재스민에서 명명된 이 민주화운동은 2010년 튀니지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재스민의 꽃씨는 인접 국가로 흩어졌고, 더 나아가 중동전역으로 흩어졌다. 42년간 장기집권에 성공했던 현대의 독재자 카다피도 국민의 민주화 운동 앞에서는 사면초가가 된다. 철권통치를 자랑하던 그의 권력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카다피는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다. 리비아 국내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했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결국 무력개입을 선택하게 된다.

## 리비아 내전의 시작

2011년 2월 15일, 투옥된 인권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리비아 제2의 도시 벤가지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친 정부 세력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경찰관을 포함한 38명이 부상했다. 이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은 리비아 전역으로 확대되며 봉기 수준으로 격화됐고, 반 카다피 세력은 벤가지의 카다피 세력을 축출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과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11년 3월부터 리비아는 카다피와 국가과도위원회 간의 내전 상태에 들어갔으며,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01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에 성공한 카다피는 외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02 1988년 2월 21일,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미국 팬암항공 소속 보잉 747 여객기



2011년 3월부터 리비아는 카다피와 국가과도위원회 간의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3대는 트리폴리의 주요 군사 목표물에 JDAM을 투하했다.

### 무력개입을 선택한 국제사회

카다피의 강경진압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망하자 2011년 2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와 그의 측근 인사 10여 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제안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는 카다피 정부가 벌인 각종 범죄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의 조사가 언급되었으며, 이후 카다피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국가과도위원회 소속의 리비아 인민해방군이 리비아 군을 압박하며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했지만, 중화기와 공군력이 열세였던 리비아 인민해방군은 리비아 군의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리비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3월 18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3호를 통과시키면서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UN헌장 제42조에 의거,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가능해졌다.

###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

3월 19일,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 45분경 국가과도위원회가 자리 잡은 뱅가지 외곽에서, 다국적군의 첫 군사행동이 실시되었다. 뱅가지 주변 150km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감시하던 프랑스 공군 소속의 라팔 C와 미라주 2000D 전투기 10대가 리비아 인민해방군을 공격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리비아 군의 자주포와 군용차량을 정밀 유도무기<sup>1)</sup>로 공격했다. 프랑스 공군의 공습 후, 지중해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과 영국 해군 함정에서 10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발사된 미사일은 트리폴리와 주와라, 미스라타 등 서부 주요 도시의 해안을 중심으로 배치된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공격했다. 이와 함께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3대는 트리폴리의 주요 군사 시설물에 JDAM<sup>2)</sup>을 투하했다.



03



04

03 리비아 공습작전을 통해 최초로 실전에 투입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04 영국 공군 소속의 토네이도 GR4 전투기는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과 페이브웨이 4 스마트 폭탄을 탑재하고 공습에 나섰다.

1) 폭탄이나 미사일을 TV, 레이저, 적외선, 전자 광학 등으로 종말유도(終末誘導)하여 목표에 명중시키는 무기. 날아가는 도중과 마지막 단계에서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명중률은 유도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10~100배, 목표 오차는 10~15m이다.  
 2) Joint Direct Attack Munition(합동정밀직격탄)의 약칭이다.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폭탄을 정밀유도무기로 변환해 주는 일종의 키트(Kit)이다.



● 2011년 3월 19일, 프랑스 공군 소속의 라팔C와 미라주 2000D 전투기 10대가 리비아 군을 공습하면서부터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됐다.

### Operation Unified Protector

리비아 공습은 2011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군의 Odyssey Dawn 작전과 영국군의 Ellamy 작전 그리고 프랑스군의 Harmattan 작전이 혼합돼 펼쳐졌다. 그러나 3월 31일, 나토가 지휘권과 작전권을 인수한 이후에는 Unified Protector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군사작전을 통일하여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미군의 역할은 공습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전력이 공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 비 나토회원국인 중동 국가인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도 작전에 참여하게 된다. 작전 초기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면서 전차, 장갑차와 같은 이동목표가 공습작전의 중요 표적이 되었다. 나토의 공습에 대응하여 리비아 군은 카다피의 지시 하에 전차와 장갑차를 도시에 숨기고 민간차량을 이용하여 병력을 이동하였으며, 인간방패를 이용하여 나토의 공습을 저지하려고 했다.

### 철권통치는 반드시 무너진다.

6개월여 간 펼쳐진 나토의 공습으로 리비아 군은 사분오열되고, 8월 23일 리비아 인민해방군은 수도 트리폴리에 진입했다. 또한 카다피 정권의 마지막 보루였던 카다피의 관저 바브 알아지지가 리비아 인민해방군에 함락되면서 트리폴리 시내 전역이 국가과도위원회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카다피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그러나 10월 20일, 결국 카다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카다피는 최후의 은신처였던 수르트마저 리비아 인민해방군에 의해 함락이 임박해지자,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다. 2011년 10월 20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30분 수르트 중앙광장에서 가까운 2구역에서 호송차량 80~100대가 수르트를 빠져 나가는 것이 나토군에 포착되었다. 카다피가 탈출을 시도할 때 이미 프레데터 무인 정찰기와 프랑스 공군의 미라주 2000D 전투기가 상공에 대기 중인 상태였다. 카다피의 차량행렬은 프레데터 무인 정찰기와 미라주 2000D 전투기의 공습으로, 퇴로가 차단당했고 차량 2대가 파괴되었다. 카다피가 탑승한 차량은 공습에 무사했지만, 뒤쫓아 온 리비아 인민해방군과 교전이 벌어졌다. 카다피의 경호 병력들은 차에서 내려 흩어졌고, 카다피도 타고 있던 차량을 버리고 소수의 경호원을 데리고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대형 배수관으로 피신했다. 양측 간에 3시간가량 교전이 벌어졌다. 교전 중 총상을 당한 카다피는 결국 리비아 인민해방군에 잡혀 사살된다. 'Operation Unified Protector' 작전은 이전의 항공전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항공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최첨단의 공중 전력과 정밀유도무기가 결합되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철권통치를 자랑하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또한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항공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AF



● 토네이도 GR4 전폭기에 공격당한 리비아군의 스커드 미사일.

# LEADERSHIP

## 하이퍼포머와 코칭



천재경영론과 인재육성론이 경영계의 화두가 된 이래 기업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전쟁(War for Talent)이 여전히 한창이다. 인재 한 명이 내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기업마다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업문제가 심각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이른바 ‘하이퍼포머(High-Performer)’의 공급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하이퍼포머’의 특징은 무엇일까?



성취욕이 강하다. 이들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에 대단한 만족감을 느낀다.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욕구단계설에서 지적한 바대로 인간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의 욕구와 같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자아실현과 같은 보다 상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하이퍼포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으려는 욕구, 즉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강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천재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보다 자신에게 맞는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잘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혁신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자존심이 강하다. 하이퍼포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타인의 지시에 대해 심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

### 그렇다면 조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포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선진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코칭(coaching)’이다. 코칭은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매니지먼트 기법이자 교육 기법이다. 요즘 부상하는 ‘멘토링’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멘토링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이끌어 주는 개념이 강한데 반해, 코칭은 상급자인 코치와 하급자가 동등한 입장에 서서 하급자의 성장과 잠재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코칭이 부각되는 이유는 하이퍼포머의 경우 상급자의 능력이 하급자보다 우월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급변하는 현실 때문이다. 코칭의 효과는 코치가 방법을 지시하기보다 부하직원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서 나타난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이퍼포머들은 자신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장을 맞본다. 지시와 통제를 받는 데서 오는 자존심의 상실도 피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하고 자가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하이퍼포머들에게 집합 교육을 통한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질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기본 정보와 핵심 지침만 제공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보지식사회의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인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방식은 이전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코칭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 관리 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도입해볼 만한 효과적인 인재 육성 방법이다. **AF**

# 공군 IN

기획특집 젊은 그대! 날아올라라. Rookies  
공군호에 탑승하기!

Photo Sketch Red Flag 대한민국 공군의 긍지를 휘날리다!

포토프레임@AF 2011년 안전 우수부대 시상 외

AIR FORCE MONTHLY 2012. 03. NEWS

생각하는 그림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 Rookies of 공군 ① ]

젊은 그대! 날아올라라.

# Rookies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출발선 위에서 있는 이들.

새롭게 임관(입대)해 대한민국 공군에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불어넣을 2012년 루키들을 만나봅니다.

# 공군사관학교<sup>o</sup>

## 60기

### 구상협 소위

“내게 있어서 공군은 꿈입니다. 사관학교는 제 인생에 첫 번째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목표 없이 살아왔지만, 공군사관생도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겨 본격적으로 공부도 시작하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공군사관학교에 훈육관으로 오고 싶습니다. 생도생활 동안 훈육관님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모교에서 후배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 이 조 은 소위

“2009년 10월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치고, 7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회복한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면 동기들과 함께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삼켰던 때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 동기들이 많이 걱정했죠. 혹시라도 다시 다칠까 봐. 그런데 훈련을 무사히, 즐겁게 해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큰 역경을 이겨내고 임관했으니,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거라 믿어요.”

### 진영준 소위

“어린 시절부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힘들었던 가입교 훈련도 견디내고,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입교식 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봤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폭발쳐 오르더라고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저는 공군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죠. 지금은 공군의 세대이지만, 나중에는 공군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이제 제 오랜 꿈인 ‘조종’을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두렵고 긴장되지만 그래도 많이 설렙니다.^^ 으랏차차!!!”



# 공군사관후보생<sup>o</sup> 127기

## 강 영 철 소위

“사실 공군인이 된 건 벌써 8년 전입니다. 병, 부사관을 거쳐 장교까지 공군의 전 신분을 석권한 셈이네요!+\_+ 아무래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공군인이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훈련을 받았지만, 화생방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_-;; 무기정비 특기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상관에게는 신뢰받고 부하로부터는 존경받을 수 있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 김 창 업 소위

“저는 미국 영주권자라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타국의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한국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솔직히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 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하지만 후보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장교가 되었을 때 모든 역경은 더 큰 자부심과 명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 김 대 열 소위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두 형제가 장교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를 바라셨거든요. 현재 형은 헌병장교로 복무 중이고, 저도 형의 뒤를 이어 항공통제장교로 임관했습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지키는 대한민국, 든든하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장교가 되기보다는 가장 노력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관후보생 127기 동지들아~! 모두들 파이팅 하자!!^^”



# 공군학군사관후보생<sup>0</sup>

## 39기

### 조 한 솔 소위

“제가 있어 공군이요? 공아일체(空我一體)라는 말로 제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군에 들어온 이상 공군이 끝나고, 제가 공군이니까요. ‘대한민국의 영광은 내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인정받는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전투기조종사 최고의 영예인 탑건의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주마가편(走馬加鞭)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 육 도 훈 소위

“고등학교 때 서울공항에서 열린 에어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깊은 감명을 받아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때의 다짐이 지금의 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군장교로서 누구보다도 밝고 성실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아무리 힘들어도 동료를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큰 그늘을 가진 나무처럼.”

### 김 해 찬 소위

“공군장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항 공대학교 진학 이후였습니다. 학군단 선배들의 이미지는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을 먼저하고, 진취적이면서도 신중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군단에 지원했는데 그 선택이 제가 했던 선택 중에서 최고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임관을 하고 장교로 출발하는 지금, 공군이라는 구름판을 딛고 제 앞에 놓인 뗏목을 모두 뛰어 넘고자 합니다.”



# 항공과학고등학교<sup>o</sup>

## 41기



### 권 성 현 하사

“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제 형이 항공과학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많이 권유했거든요.^^ 평소 공군에 대한 호감도 있었어요. 공군은 뭐랄까... 엘리트들이 모이는 군? 항공과학고등학교의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졸업 후, 공군부사관 임관이라는 혜택은 제게 있어 큰 매력이었습니다. 앞으로 공군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와도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 최 현 준 하사

“십대들에게 공군은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대들의 흥미를 끌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에어쇼라든지, 스타리그의 공군 에이스팀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항공고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실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같이 41기로 지원했지만, 형을 42기 후배로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저희 형은 지금 공군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이 꼭 합격해서, 쌍둥이 형제가 장교와 부사관으로 공군에서 함께 복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그 날이 기다려지네요.”

### 문 근 영 하사

“제게 있어 공군은 또 다른 집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군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언니도 공군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나중에 언니와 함께 같은 자대에서 함께 근무해보고 싶은 작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기인 항공기체 정비에서 인정받아 나중에 제가 정비한 전투기가 창공을 마음껏 누비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 공군부사관후보생<sup>o</sup> 212기

## 최민영 하사

“묻어가는 존재가 아닌, 어디서든 각광받고 쓰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하사 최민영입니다. ^^ 어렸을 적부터 군인을 꿈꿨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만약 군인이 된다면, 3군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군요.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더불어 푸른 제복도 너무 멋졌구요. 앞으로 저의 동반자가 될 공군. 스스로가 좋아서 선택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 이민우 하사

“부산~~ 사나이 22살, 이민우 하사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하늘에 대한 동경을 다들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겁니다. 또한 성격이 활발해 기쁨때를 묻히며 와이드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항공기 정비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제 삶의 도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뭘 일만 남았죠. 스마트하고 다재다능한 부사관이 돼서, 앞으로 공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박건희 하사

“안녕하십니까. 212기 신임부사관 박건희입니다. 공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멋진 군인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선망과 존경 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명예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군은 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동기들이, 함께 믿고 의지할 장교분들과 병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3군 중 가장 스마트한 공군에서 인정받는 선진부사관이 되겠습니다.”

# 공군병<sup>o</sup> 기1기

## 박 성 호 이병

“기억에 남는 훈련이요? 훈련 3주차에 기록사격이 있었어요. 사격을 하고 나니,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생전 처음 듣는 큰 총소리에 놀랐지만 모든 탄알을 명중시켜 뿌듯했습니다. 화생방훈련도 결코 잊을 수 없죠. (ㅋㅋㅋ) 이제 막 시작하는 군생활, 앞으로 저는 공군에서 다른 전우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변 전우들도 저로 인해 기쁜 군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신 철 호 이병

“솔직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까지는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3군 중 공군을 선택한 이유는 신사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자기계발의 여건이 좋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공군 복무는 제 인생의 교차로라고 생각합니다. 교차로는 길과 길이 마주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앞으로 저는 공군이라는 교차로를 통해 여러 전우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 김 현 준 이병

“육군, 해군, 해병대도 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군은 가장 신사적이고 엘리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가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군 ROTC 장교출신이고, 형이 병 700기 방공포 특기로 복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방공포 특기에 지원했습니다. 조국영공수호를 위해 미력하지만 제 힘을 형과 함께 보태고 싶습니다. 형제는 위대했다!! ^^”



[ Rookies of 공군 ② ]

# 공군후에 비행기 타승하기!

그대, 공군의 루키가 되고 싶은가?  
누구나 궁금해하는 제대로 된 공군입대방법.

## 공군사관학교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의 하늘에 바친다!

### 공군사관학교 이래서 좋다!



진영준소위

먼저,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할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 두 번째로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원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3군 중 제복이 가장 멋지다는 점.^^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지요. 매월 소정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되기도 하고, 또한 최신형 노트북을 받는다는 거? 또한 재학 중에 미 공군사관학교, 일본 방위대학교 등 해외유학, 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적이 좋다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



이조은소위



구상협소위

사관학교는 일반학교처럼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지용(智勇)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명예와 도덕성까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선·후배, 평생 함께할 동기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 미래 공군사관생도에게!



진영준소위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4년간의 생도생활은 자신을 갈고 닦는 '수신'의 기간입니다. 장차 공군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배 여러분들은 생도생활 동안 수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관생도로 4년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모두 이겨낸다면 분명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멋진 장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미래의 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청춘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항상 가슴에 새겨두었으면 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조은소위



구상협소위

임지에서 먼저 나가 여러분들을 빛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멋진 선배로서 후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 공군사관학교 지원자격

- ① 입교일 기준 만 17세~20세
- ② 대한민국 국적 미혼 남·여
- ③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 군(軍)을 불명에 제대했거나 본교 또는 타군사관학교에서 불명에 퇴교자, 복수국적자는 지원이 불가.
- ※ 지원자격, 선발전형 내용은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 공군사관후보생(예비장교 후보생, 조종장학생) 사관후보생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 공군사관후보생 이라서 좋다!



김대열소위

많은 인재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취직하기 힘든 시기 장교출신들을 우대해주기 때문에 아직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장교로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이점도 있구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 공군 사관후보생. 저는 이곳에서 끈끈한 동기애와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김창엽소위

## 미래 공군사관후보생에게!



김대열소위

군복무를 해야 한다면, 공군. 그 중에서도 사관후보생은 앞으로의 미래에 후회없는 선택일 겁니다.

사관후보생.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기억이 될 것입니다.



김창엽소위

사관후보생이여, 조국이 당신을 부릅니다.



강영철소위



강영철소위

조종장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대학등록금을 지급받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예비장교후보생도 조종장학생과 마찬가지로 예요. 졸업 후 공군사관후보생 입대를 보장하죠. 4학년의 경우, 성적·체력우수자에게 장려금도 지급한답니다.

## 공군사관후보생 지원자격

- ①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국적 남·여
  - ※ 단, 군복무 경력자는 경력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최대 만 30세까지)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는 만 29세까지 지원가능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는 만 29세까지 지원가능
- ② 대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자격

- ①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국적 남자
- ② 대학교 1학년~3학년 재학생
- ③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 조종장학생 지원자격

- ①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국적 남자
  - 대학교 1학년~3학년 재학생
  - ※ 단, 항공대 운항학과, 한서대 운항학과, 교통대 운항학과 재학생은 1학년, 2학년에 한함.
- ② 타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 공군학군사관후보생(ROTC) 충의! 명예!

## 공군학군사관후보생 이라서 좋다!



김해찬소위

학군단을 하면서 생활습관이 바로잡히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2학년 때와 비교해 학점이 1점 이상 올랐죠. 아! 한 가지 더, 매 학기 장학금이 성적순대로 지급된다는 점?

대학생활 중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졸업 후, 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동기간의 돈독한 우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도훈소위

## 미래 공군학군사관후보생에게!



김해찬소위

공군을 선택한 것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사회 어딜 나가 봐도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구조의 조직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군대의 신속, 정확함, 사회조직의 융통성, 창의성을 두루 갖춘 조직은 공군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



조한솔소위

공군 학군단 최대의 이점은 대학생활과 군생활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비행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준비된 상태로 비행훈련에 임할 수 있습니다.

## 공군학군사관후보생 지원자격

- ①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남·여
- ② 항공대·한서대 2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자
- ④ 조종분야 지원은 항공운항학과 남학생에 한함. (장기복무 지원자)
- ⑤ 항공운항학과 학생 중 조종장학생은 3학년 진급시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신분 전환

# 항공과학고등학교 참되고, 즐기롭고, 씩씩하게!

## 항공과학고등학교 이래서 좋다!



관성현하사

3년간 교육비가 전액 국비 지원!!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수준의 항공정비 실습장 및 도서관이 완비되어 있으니, 항공과 정비에 관심 있는 학생은 꼭 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학교에 들어오면 군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군인이라고 결코 한정된 일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계발을 한다면, 공군 내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른 나이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 기회도 많습니다.



문근영하사



최현준하사

무엇보다도 미래 항공기술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력과 자부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요. 또한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실전 여학강의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외견학, 해양훈련, 기지견학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제공합니다.



관성현하사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옵니다.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미래 공군인, 파이팅!



최현준하사

공군의 길을 선택한 이상, 각 분야에서 후회없이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새 바른 길을 걸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 항공과학고등학교 지원자격

- ① 입교일 기준 만 15세~17세의 대한민국 국적 남·여
- ②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③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등 학력으로 인정

## 미래 항공과학고등학교생에게!



문근영하사

지금의 초라함은 훗날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순간에도 미래의 꿈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 공군부사관후보생지원자격

- ① 임관일 기준 만 18세~27세의 대한민국 국적 남·여
  - ※ 단, 군복무 경력자는 경력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최대 만 30세까지)
- ②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 단, 중학교 졸업자 중[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지원가능하며 직종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인정. 현역병의 경우, 기본군사훈련 시작 1일 전까지 일병 이상인 자

# 공군부사관후보생 항공 우주군의 주역, 공군부사관!

## 공군부사관후보생 이래서 좋다!



최민영하사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많아요. 혹시 공부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군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등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지요. 장기복무에 선발되면 평생직장으로 근무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군부사관은 특성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자격, 학력, 경력을 살려 군복무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기회 부여나 교육지원도 잘 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우하사



박경희하사

기술군인 공군의 특성상, 부사관은 미래 항공우주군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영하사

## 미래 공군부사관후보생에게!

같은 부사관으로서 어디서든 응원하겠습니다. 예비 공군부사관이여 파이팅!!

들어오기 전,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준비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단련해서 온다면 멋진 공군부사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우하사



박경희하사

부사관으로 임관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받으십시오. 모든 군인들은 다들 거쳐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새 멋진부사관이 된 당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 공군병 조국충성! 필승공군! 정예신병!

## 공군병 이래서 좋다!



박성호이병

먼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병영문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군에  
게 약폐습은 이제 먼~~ 옛 말이죠. 또한 부대가 대도시에 인접해,  
휴가와 외박시 정말 편합니다. 그 밖에 6주마다 2박 3일씩 정기  
외박이 나와, 정기적으로 사회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  
무 지나치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는 핀잔을 듣죠.)

공군에 오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대했습니다. 당연히  
공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없을 리가 없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좋은 전우들도 만났구요. 또한 공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 사람들이 공군이라고 하면 좋게 봅니다.



신철호이병

개선된 신형 복제도 빼놓을 수 없죠. 3군 중 가장 멋집니다! 국제신  
사인 공군의 품격을 더 해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타군에 비해 많  
은 자기계발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전역 후 사회에 나가서도 한  
발 더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김현준이병

## 공군병 지원자격

- ① 지원연도 기준 만 18세~28세의 대한민국 국적 남자
- ②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③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3등급 이상인 자
- ④ 단, 정신질환은 입영 후 정밀신체검사 3등급 이하 판정 시 불합격

## 미래 공군병에게!



박성호이병

군복무는 전역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지표이자 희망  
찬 미래를 약속하는 자격증입니다. 저와 같은 길을 선택하신 모  
든 예비 공군인들, 군복무에 최선을 다해 멋진 공군인으로 거  
듭났으면 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 공군 복무는 여러 이점  
이 많으니, 그것을 잘 누리 열심히 군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호이병

군 복무는 젊은 날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공군  
에서 뜻 깊고 소중한 당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합니다. **AF**



김현준이병

## 공군입대 지원안내

-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http://www.afa.ac.kr>) · 지원문의 : 043) 290-5504
- 공군사관(예비장교후보생, 조종장학생)/공군부사관 후보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http://www.airforce.mil.kr>) · 지원문의 : 1644-0953(공군 모병관 자동연결 안내전화)
- 공군학군사관후보생 항공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 02) 300-0232 · 한서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 041) 689-1734 · 한국교통대학교 학생과 : 043) 841-5021
- 항공과학교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http://www.atc.airforce.mil.kr:7030/kokyo/kokyo1.htm>) · 지원문의 : 055) 750-5231
- 공군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http://www.mma.go.kr>) · 지원문의 : 1588-9090(병무민원 상담전화)

※ 공군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모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연도의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Red Flag

대한민국 공군의  
공지를 휘날리다!

 미국 네바다 주 넬리스(Nellis) 기지에서 한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참가한 2012 레드플래그 (Red Flag) 훈련이 지난 2월 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레드플래그는 미 공군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으로 공중전투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위해 미 공군, 해군, 해병대, 주방위군의 주요 동맹국 전력이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완벽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확인한 이번 훈련을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소개합니다.

## Red Flag 훈련이란?

미 공군이 주관하는 대규모의 공중 기동 훈련으로서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 주방위군의 항공전력이 참가하며, 동맹국의 항공전력도 부정기적으로 참가합니다. 훈련의 기원은 베트남전에서 공군 전투기의 교전 피격률이 급격히 떨어지자(이전에는 10:1 이상이었으나 2:1까지 떨어졌고, 어느 시기에는 1:1까지) 실전적인 공중전투기동훈련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1976년에 이 훈련을 전담할 4440 전술전투훈련전대(Red Flag)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은 청팀(아군)과 홍팀(적군)으로 나뉘어 상호교전, 전술폭격 등의 훈련을 실시하며, 적기를 담당하는 비행대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01



02



01 강렬한 태양 빛을 받으며 활주로에 정대해 있는 F-15K  
02 정비사의 수신호를 받으며 이륙준비 중인 전투기

레드플래그 훈련 브리핑실 천장에 한국군의 참가를 기념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2008년 이후, 4년 만에 이번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인 F-15K 6대와 20여 명의 조종사를 포함한 8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훈련기간 중 총 58소트의 임무를 통해 연합 작전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적의 가상 레이더 등 주요 거점을 식별해 무력화시키는 첨단 무장 실사격 훈련은 레이저유도폭탄(LGB: Laser Guided Bomb), 합동정밀직격탄(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레이저유도 JDAM 등이 동원되어 이루어졌으며, 8~16km 밖에 위치한 가상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켜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05

- 03 이륙 전 의견을 나누는 조종사와 정비사들
- 04 F-15K 전투기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 벨리스 기지가 있는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중
- 05 착륙하고 있는 F-15K 전투기 뒷쪽으로 라스베이거스 시내가 보인다.



착륙 후 환한 웃음을 보이며 걸어오는 조종사들



美 적기 전담대대에 맞서 미국, 사우디와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이뤄 항공차단과 근접항공 지원작전 등 고난도 연합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적진 깊숙이 위치한 표적을 공격하는 첨단 무장 실사격 훈련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AF



06 Red Flag 훈련장 앞에서 단체촬영  
07 한국군 훈련단장 윤재훈 대령이 미군 훈련단장에게 한국공군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92년 참가했던 기념패가 레드플래그 훈련장에 아직도 전시되어 있다.

## 2011년 안전 우수부대 시상

참모총장은 2월 7일, 제11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된 2011년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을 주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금자탑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실전적 교육훈련에 매진해 오면서 성취한 맘의 결실이기에 그 어떤 위업보다도 각별함은 물론, 지휘관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부대원 전체가 동참한 가운데 이룩한 쾌거이기에 더욱 빛나는 것”이라며,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수많은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발생하는 만큼,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황이 악화 되기 이전에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태세 점검

참모총장은 2월 7일, 대구기지를 방문해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3월 핵안보 정상회의는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적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최근 강추위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운영이나 작전 지원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동계 작전태세를 잘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공사 60기 졸업생도 계룡대 견학

참모총장은 2월 6일, 계룡대를 방문한 공사 60기 졸업생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초급장교의 생활은 생도생활과 달리 항상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해 나간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에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참모총장에게 동기생 졸업기념 점퍼를 선물했습니다.



## 페루·콜롬비아 군사외교

참모총장은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페루와 콜롬비아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방문기간 중 참모총장은 양국 공군사령관에게 KT-1과 T-50 항공기의 성능과 선진 비행교육훈련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상호교류 확대와 국방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AIR FORCE MONTHLY

2012. 03. NEWS

제64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 및 재교생 진급식

##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지난 2월 17일, 제64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 및 재교생 진급식이 김용홍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비롯한 신입생 학부모와 친지, 재교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연병장에서 거행됐다.



항공구조사, 실전적 육한기 전투 탐색구조훈련 실시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6전대')는 2월 15일, 충북 진천군 소재 초평저수지에서 항공구조사 20여 명과 HH-47, HH-60, HH-32 탐색구조헬기가 참여한 기운데 '육한기 전투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강이나 호수로 비상 탈출한 전투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구조작전 명령을 받은 항공구조사 요원들은 탐색구조헬기 3대에 탑승해 조난한 장으로 출동한 후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얼음물 속에 뛰어들어 조난자를 구조했다.

항공구조대장 김회현 소령은 "육한기 익조간 속에서도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조종사를 구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항공구조사의 슬로건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심양화학공업 박재준 대표, 하늘사랑장학재단에 2억원 기탁 공군 순직조종사 유자녀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

지난 1월 27일, 박재준 심양화학공업 대표이사가 공군 순직조종사 유자녀들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인 '하늘사랑장학재단'에 2억원을 기탁했다.

박재준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하늘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이영만 참모차장은 "공군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 공군장병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증은 조국 영광방위 임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



박재준 대표이사를 대신해 강경한 비서실장이 상금을 기탁하고 있다.

### 'F-15K 기동률' 보잉사가 책임 관리 방사청, 미 보잉사와 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

앞으로 F-15K의 부품들을 적기에 확보하고 목표 기동률을 유지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과 미 보잉사는 F-15K의 핵심부품 948종을 보잉사가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수리 부속 보급지원으로 인한 비행불가능 상태를 7% 이내로 유지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계약을 지난 2월 22일(수) 체결했다.

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방사청은 앞으로 5년 동안 3,250억원을 보잉사에 지급하고, F-15K 비행불가능 상태가 7%를 초과할 시 계약금액의 최대 4%가 지의 페널티를 돌려받게 된다.



성과기반군수지원 : 공군이 목표로 하는 기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면 제작사가 성과지표의 유지를 위해 부품을 제공하고, 차후에 운송장비를 확인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업체주도 군수지원제도

#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서울 종로에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놓은 한 중국음식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맛을 자랑하여 지금껏 돈을 내지 않고 간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진 오후 무렵, 궤변이 많은 노인과 열 살 남짓한 아이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지 앉자마자 자장면 두 개를 시킨 그들은 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입맛을 다시며 너무나 맛있게 먹는 아이의 모습에 노인은 자기 그릇에서 절반이 넘는 자장면을 듬뿍 덜어 아이의 그릇에 옮겨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노인이 홀로 키우는 손자였고, 단 둘이 살면서 자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손자를 이끌고 모처럼 큰 용기를 내어 외식을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한쪽 구석에서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음식점 주인이 갑자기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방장, 오늘은 내가 자장면 맛을 못 봤네. 조금만 가지고 와 봐. 맛 좀 보자.” 반 그릇짜리 자장면을 맛보기로 먹어본 주인은 몇 조각 떼먹더니 말했습니다.



“주방장! 오늘 자장면 맛이 왜 이렇지? 기름기가 너무 많잖아. 간도 잘 안 맞고, 이렇게 맛이 없어서야 어디 손님에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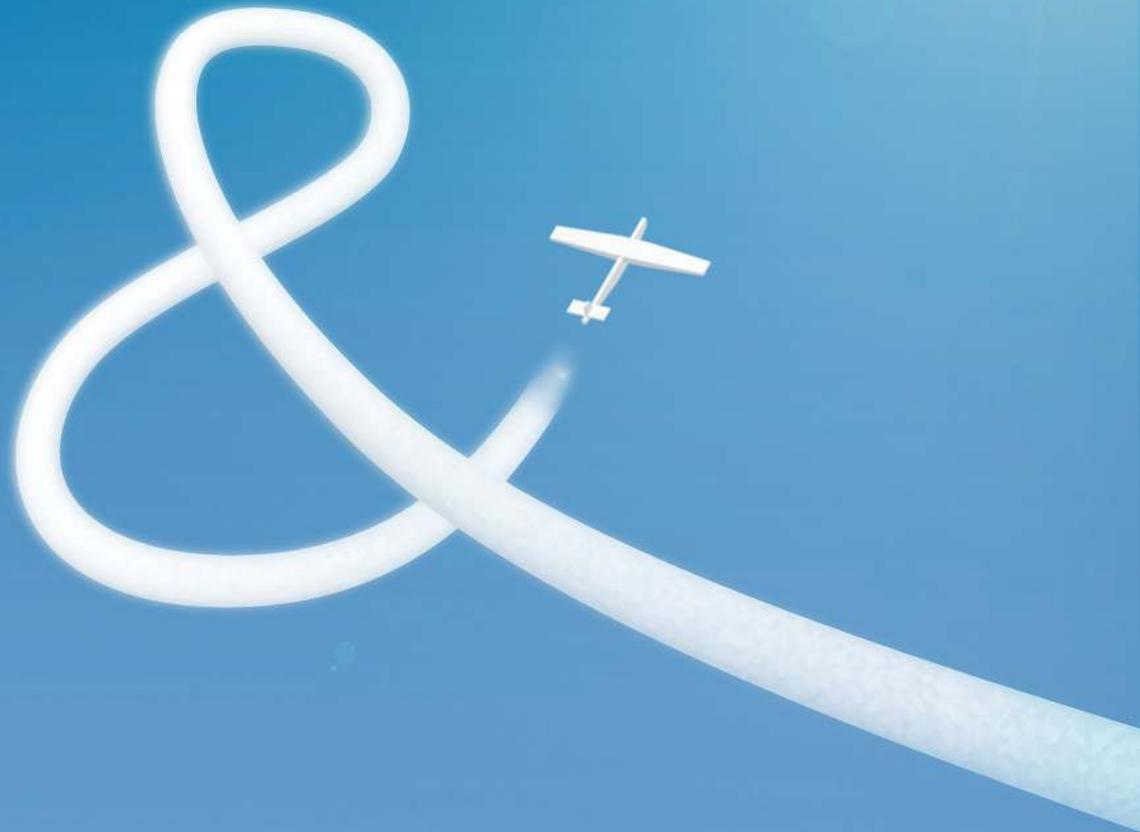


식사를 마치고 맛있게 먹었다며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돈을 꺼내려는 노인의 손을 꼭 붙잡으며 주인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오늘 자장면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번에 오시면 꼭 맛있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뒤로한 채 가게를 나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음식점 주인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던 길에 뒤돌아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어르신께 해맑은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 Culture

## 36.5

Hollywood English WAR HORSE

인생은 아름다워 은장미의 전령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Art in Everyday 여행을 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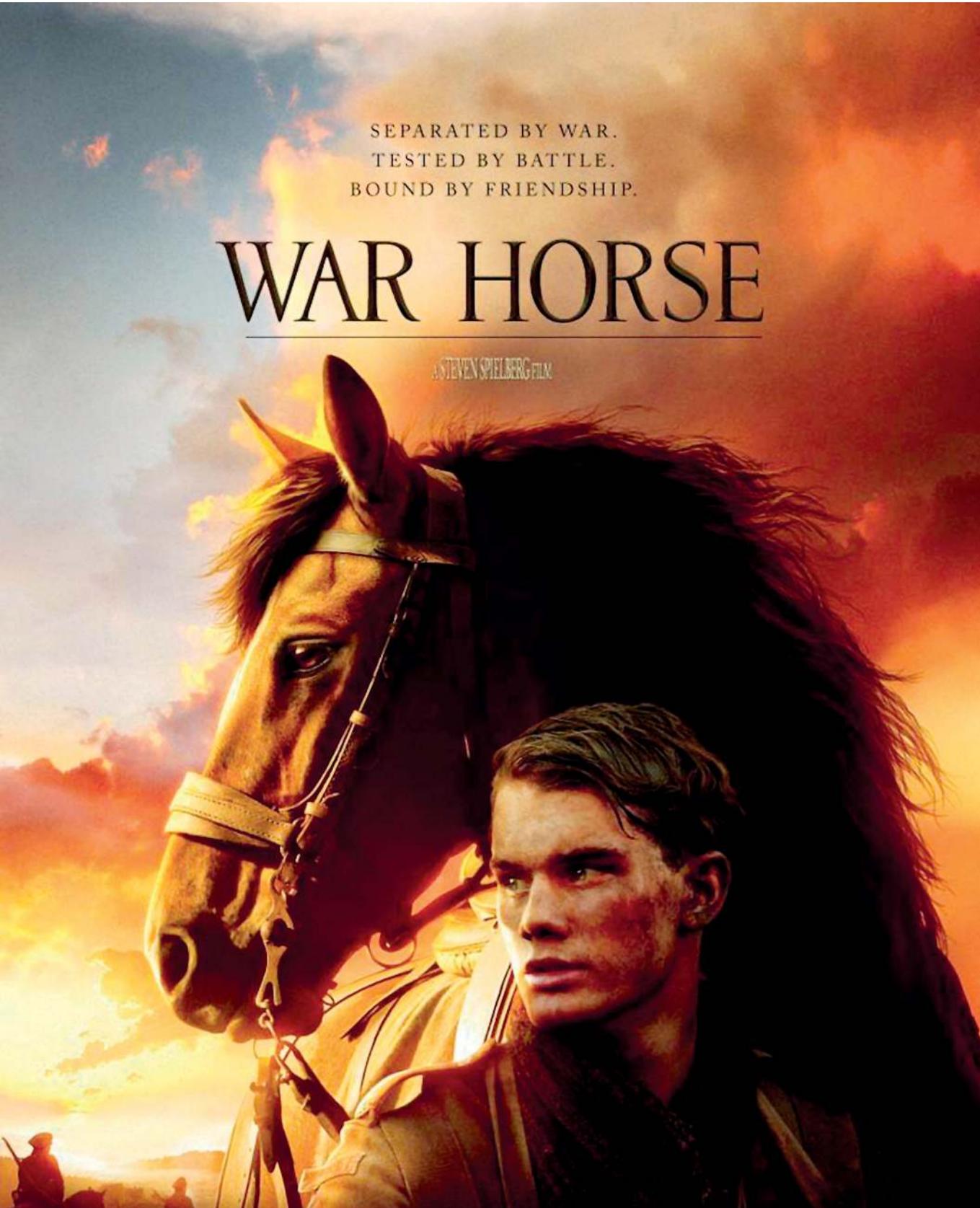
Air-Supply 오디션에 도전하자!

Preview 3월의 문화행사

SEPARATED BY WAR.  
TESTED BY BATTLE.  
BOUND BY FRIENDSHIP.

# WAR HORSE

A STEVEN SPIELBERG FILM





### 제1차 세계대전과 War Horse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은 전쟁에 말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잘 달리는 명마를 기병대에 보내 지휘관의 전투용 말로 활용했고, 힘 좋은 말은 무기를 운반하거나 부상병을 수송하는 마차용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동원된 거의 모든 말은 전투 및 작전 중 죽었고, 일부는 식용으로 도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살아 돌아온 말은 3천 마리 중 네 마리 꼴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황실훈장을 받은 베스트셀러 소설가 마이클 모퍼고(Michael Morpurgo)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갖고 어렵사리 기록을 수집했으며, 1982년 마침내 스티븐 스피버그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워 호스 War Horse>의 원작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War Horse>는 연극으로도 이미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크게 성공한 바 있는 걸작입니다.

### 빈농의 말 조이의 위대한 오디세이

영국의 빈농인 테드가 경매에 나온 말 조이를 터무니없는 값에 삽니다. 조이를 탐내는 경쟁자를 이기려고 가진 재산을 다 걸었던 건데요, 문제는 경쟁자가 테드의 땅주인이라는 점입니다. 관한 자존심이 테드를 자극한 것이지요. 테드의 아들 앨버트는 조이를 정성껏 키웁니다. 연약해보이던 조이는 놀랍게도 앨버트를 도와 돌투성이 야산을 경작하고, 테드는 큰돈을 벌 꿈에 빠집니다. 그런데 폭우가 그해 순무 농사를 망쳐놓는군요. 전쟁까지 터집니다. 결국 테드는 빛을 보기 위해 조이를 내다파는데요, 조이의 파란만장한 오디세이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니?”

조이의 새 주인은 영국군 기병대 대위입니다. “조이를 내 말처럼 지켜줄게(I will take care of Joey as my own horse).” 조이를 잃지 않으려는 앨버트에게 대위는 단단히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독일군의 유인작전에 속은 대위가 체포되고, 조이는 이제 적군의 마차를 끄는 신세가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듯, 명마의 진면목을 알아본 소년병들은 조이와 함께 탈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의 농가에서 발견돼 즉결로 총살됩니다. 그 후 조이는 프랑스 소녀 에밀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모없이 큰 손녀를 보살피는 할아버지는 에밀리가 아끼는 조이를 꼭 지켜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물거품이 됩니다. 조이가 독일군에게 발각되고, 그 즉시 대표를 끄는 고된 노동에 동원됩니다. 관객은 부디 조이에게 거듭 착한 사람이 나타나 도와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은 감독의 은유와도 맞물립니다. 영화의 교훈처럼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말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고 묻는 은유 말이지요.

### 교전국 군인들이 손잡고 조이를 구하다

세월이 흘러 앨버트도 최전선에 투입됩니다. 조이와의 극적인 만남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조이를 떠올릴 때마다 용기가 솟는 앨버트는 마침내 한 전투에서 독일군 참호에 들어간 앨버트는 독가스에 노출됩니다. 고향의 앨버트를 향해 질주합니다. 철망이 표적이 된 조이는 전장을 탈출합니다. 고향의 앨버트를 향해 질주합니다. 철망이 자신의 몸뚱이를 찢고 찢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겁겹의 철망에 휘감긴 조이는 쓰러지고 맙니다. 다행히 그곳은 영국군과 독일군의 중립지역(no-man's land)입니다. 조이의 상태는 화생이 어려워 보일 만큼 중상입니다. 잔혹한 인간성 때문에 희생되는 ‘순수’의 상징인 조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저를 여러분이 지은 죄의 희생양으로 만들 셈입니까(Are you really going to make me die for your sins)?” 이때 감독은 <War Horse>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국 병사와 독일 병사가 다가가 철망을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조이는 목숨을 건질까요? 그 리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앨버트와 재회하게 될까요?

### 스피버그 최초의 1차 세계대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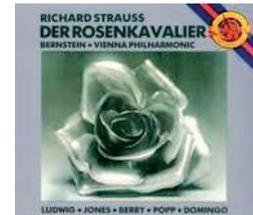
스티븐 스피버그가 감독한 다음 영화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레이더스>, <태양의 제국>, <인디애나 존스: 최후의 성전>, <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맞습니다.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반면 <War Horse>는 스피버그가 만든 최초의 제1차 세계대전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피버그가 <War Horse>의 원작 소설에 얼마나 감동했는지는 그의 술회가 잘 말해줍니다. “(이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해 그토록 흥미를 가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I had never been that interested in World War I)”

###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자신의 모든 영화에서처럼 스피버그는 이번 영화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의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그 메시지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더 부각됩니다. 스피버그는 타오르는 석양 아래의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앨버트의 부모 얼굴을 화면에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지금 저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는 누군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장면은 마치 붉은 노을이 가득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여주인공 스칼렛의 독백 대사를 연상케 합니다. 분명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AF**



## 은장미의 전령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요즘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혼집이며, 혼수, 예단, 패물 등등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부터 내려오던 결혼은 오랜 관습이라서 혼인을 맺는 양가가 서로 예를 갖추게 되는데요. 결혼에 대한 오랜 관습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18세기 유럽의 귀족 가문에서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장미의 기사'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가 될 가문에 은으로 만든 장미를 예물로 전달함으로써 청혼의 예를 갖추는 거죠. 신랑 측 친척인 장미의 기사는 본인도 은빛 옷을 갖춰 입고 은장미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오스트리아, 유럽 최대의 왕조, 합스부르크가의 마리아 테레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막이 오르고 오페라가 시작되면 무대에는 호화로운 침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서른두 살의 '후작 부인'은 열일곱 살의 '옥타비안 백작'과 함께 있죠. 후작이 집을 비우는 동안, 후작 부인은 이 어린 청년과 함께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즐거운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이른 아침에 불쑥 찾아온 건데요. 당황한 옥타비안은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고 옷장 속으로 몸을 숨기죠.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불청객은 후작 부인의 친척 '옥스 남작'이었습니다. 후작이 아니라는 사실에

후작 부인은 안도의 숨을 쉬지만, 평소에도 빈정거리는 옥스 남작은 아침부터 후작 부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호색한에 욕심 많은 옥스 남작은 재력이 '파니날 가문'과 결혼하게 됐다고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본래 평범한 집안이었던 파니날 가문은 황후의 도움으로 뒤늦게 귀족이 되었는데요. 옥스 남작은 12개나 되는 저택을 소유한 파니날 가문과 맺어진 것에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귀족의 피와 파니날 가문의 재력이 합쳐지면 아이들은 어떠한 걱정도 없이 살게 될 거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죠. 장황한 허풍을 늘어놓던 옥스 남작은 드디어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파니날 가문에 은장미를 보낼 장미의 기사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온 옥스 남작의 횡포에, 후작 부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옥스 남작처럼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바람둥이 옥스 남작이 후작 부인의 하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끔한 외모에 품위가 있는 하녀는 아주 특별해 보이는 여인이었죠. 하녀가 후작 부인의 방에서 나가려 하자, 옥스 남작은 못 나가게 하면서 계속해서 수작을 겁니다. 옥스 남작은 결혼을 앞두고도 아무 여자에게나 집적거리는 남자였던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후작 부인은 잔뜩 긴장합니다. 옥스 남작이 마음에 들어 하는 하녀는 바로, 후작 부인과 함께 있던 옥타비안 백작



이었던 겁니다. 아직 열일곱밖에 되지 않은 옥타비안 백작이 여장을 하자,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리따운 아가씨가 됐죠. 한눈에 반할 만한, 빼어난 외모였습니다.

후작 부인의 못된 행실이 들끓날 위기의 순간. 후작 부인에게는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하녀로 변장하고 있는 옥타비안에게 장미의 기사를 맡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거죠. 후작 부인은 옥스 남작에게 옥타비안의 초상화를 보여주고 그가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남작은 옆에 있는 하녀의 얼굴을 보며, 둘이 정말 닮았다고 이야기하죠. 후작 부인은 그런 이유에서 하녀를 특별히 아낀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해서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은 모면할 수 있었죠. 이제 사건은 장미의 기사가 된 옥타비안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은장미를 들고 파니날 가문을 찾은 옥타비안은 그곳에서 '조피'라는 아리따운 신부를 발견합니다. 수녀원에서 자란 조피는 열다섯밖에 되지 않은, 아직도 앳되고 어리기만한 순수한 소녀였죠. 옥타비안은 조피를 보고, 조피는 옥타비안을 보고 한눈에 서로 반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한눈에 반한 것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습니다. 옥타비안은 신랑 옥스 남작이 보낸 장미의 기사에 다를 아니었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두 남녀는 멀뚱멀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랑이라는 작자가 나타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고 맙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을 지녔던 조피는 신랑이 될 뚱뚱한 남자를 보고 기겁을 하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신부가 될 조피에게 함부로 대하는 옥스 남작은 도무지 예의라고는 모르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귀족을 신랑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옥스 남작의 무례한 행동이 계속되는데도 화를 내는 사람은 옥타비안밖에 없었습니다. 조피의 아버지 파니날은 사위가 될 남작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타비안은 화를 누르지 못하고 칼을 뽑아 듭니다. 그리고는 과감히 옥스 남작의 팔을 칼로 찌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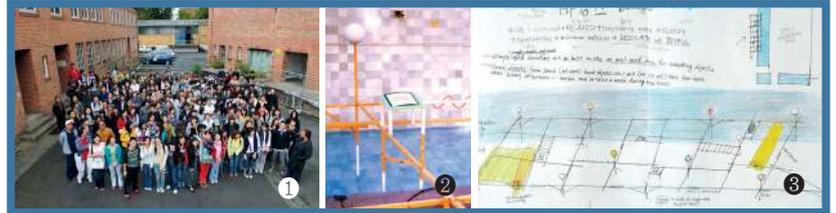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결혼을 앞둔 파니날 가문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 같은 귀족 가문의 사위가 파니날 가문의 저택에서 상처를 입다니요... 의사가 달려오고, 파니날 가문 사람들은 큰일이 났다며 근심에 싸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식당이 있는 어느 여관. 옥스 남작은 후작 부인의 하녀에게 편지를 받고는 여관으로 달려 왔습니다. 부상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하녀의 편지를 받고 신이 났죠. 그토록 원하던 순간인데, 부상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스 남작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팔을 찌른 옥타비안의 얼굴이 보이고, 어디선가 조그만 아이들이 나타나더니 아빠라고 부르며 울어대죠. 또 별안간 경찰이 나타나더니 풍속을 해쳐다며 체포하려 합니다. 심지어 머리를 조아리던 조피의 아버지까지 나타나 남작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일에 당황하는 사람은 옥스 남작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등장한 후작 부인... 후작 부인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당황해하는 남작을 진정시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파니날 가문의 재력을 얻으려 했던 욕심 많은 옥스 남작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청혼을 대신하기 위해 장미의 기사가 된 옥타비안은 조피를 사랑하게 됐고, 옥타비안을 장미의 기사로 보냈던 후작 부인은 옥타비안을 사랑하고 있었죠. 물론 조피는 옥스 남작이 아닌 옥타비안을 사랑하게 됐고 말입니다. 이제 후작 부인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순수한 젊은 연인을 위해 자신은 물러나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옥타비안을 사랑한다고 해도, 후작 부인은 옥타비안을 얻을 수 없었죠. 모든 마음의 갈등이 정리되고, 서로를 안고 있는 옥타비안과 조피는 노래합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길 바라며... **AF**



여행은 그대에게 힘과 사랑을 돌려준다.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① Ai Weiwei, Fairytale Project, 2007  
 ② Yiso Bahc, Bakangse, 2002  
 ③ Yiso Bahc, Drawing for Bakangse, 2002



① Ai Weiwei, Fairytale Project, 2007  
 ② Sora Kim, 2001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잘라루딘 루미는 이렇게 여행을 노래했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을 따라 살랑살랑 어디론가 걸음을 옮기고 싶어지는 이때, 루미의 권유대로 마음의 길을 따라 건다 심심해질 무렵, 뭔가 새로운 세계를 기웃거리고 싶어질 때면 현대미술 작가들이 풀어놓는 여행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도 좋으리라.

때는 2002년 모월 모일, 한국에서 떠난 여섯 개의 물건이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 도착한다. 벽돌을 쌓아올려 집처럼 보이는 물건과 새 모양을 한 것, 차단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으나 정체는 불분명하다. 이들은 곧장 카스티요에 있는 EACC 미술관의 외벽에 마련된 풀장으로 향해 해가 떠 있는 내내 일광욕을 즐겼다. 그리고 해가 지자 그 옆에 놓인 카트 호텔에 체크인해 편안한 잠을 청했고, 이튿날 다시 해가 뜨자 전날과 다름없이 제 자리에 누워 일광욕을 즐겼다. 길거리 출신이라고 한국에선 아무도 봐주지 않는 버려진 신세였지만 한 마음 좋은 작가를 만난 덕분에 이렇게 해외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게 된 것이다.

이들을 스페인까지 데려가 휴가를 즐기게 한 마음씨 좋은 작가, 그의 이름은 박이소다. 설치미술가이자 개념미술가로 이름을 알린 그는 2002년 스페인 EACC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바캉스(Bakangse)'란 작품을 출품했다. 서울에서 주운 물건들, 그리고 그런 재료로 작가가 만든 물건들을 미술관 외벽의 풀장으로 바캉스를 보내주는 작업. 그는 전시 기간 내내 사람들이 그러듯이 이 물건들로 하여금 낮이면 햇볕 아래서 일광욕을 즐기게 하고, 밤이면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카트 속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2000년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힘들어하던 작가인 만큼 자신이 바라던 진정한 휴식의 소망과 작가를 특징짓는 버려진 것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 그리고 유머감각까지. 이 작품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 '내가 저 물건들 가운데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짜 사람들의 여행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2002년 떠오르는 젊은 작가로 주목받던 김소라는 이탈리아의 카르보냐노 현대미술센터로부터 작품제작비로 1,000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미술관에서 열릴 'Archivio Attivo' 전에 출품할 작품을 위한 제작비였다. 평소 일상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경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나 홀로 작품'보다는 관람객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작품'들을 선보여온 작가는 이번에도 그런 시도가 가능한 구석이 없을까 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한 환경미화원을 만났고, 해외여행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그에게 작가는 여행을 제안했다. 그가 해외여행지로 정

한 곳은 태국. 작가는 그가 부인과 함께 떠나는 4박 5일 간의 태국여행 비용을 대줬고, 그 대가로 그들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카르보냐노 현대미술센터에서 열린 전시에 출품된 작가의 작품으로 탈바꿈했다. 작가의 시선이 아닌 한 평범한 부부가 낯선 환경을 만나, 보고 즐긴 새로운 시각의 사진들... 그저 '누군가의 여행사진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사진은 걸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작가의 작품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작가를 둘러싼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맺은 관계, 그리고 그 넓어진 관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라는, 작업과정 전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들의 여행 역시 새로운 스토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2007년 독일 중부 헤센 주의 작은 도시 카셀에서 벌어진 소동을 더해 보면 어떨까. 우리에게 낯설게만 여겨지지만 카셀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림형제의 고향,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미술행사인 카셀 도큐멘타로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꽤 알려진 곳이다. 2007년 이 작은 도시에 미술 관계자들이 찾아들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 시민들 대부분이 중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도시에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을 것이다.

이 소동을 벌인 이는 바로 중국의 현대미술 작가 아이 웨이웨이이다. 그는 요즘 현대미술계에서 술한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인물인데, 스위스 건축회사와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했으면서도 개막식에 초대받지 못했고, 가택연금과 함께 출금금지조치가 취해지는가 하면, 중국정부 당국으로부터 26억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작가의 세금을 대신 내주자며 국민들이 펀드를 만들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사다. 지난해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공동 총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해서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 그런 그가 2007년 카셀 도큐멘타에서 '동화(Fairy tale) 프로젝트'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그는 카셀이 그림형제의 고향이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 동화를 현실로 이뤄내고자 했다. 사람들이 가진 꿈을 이뤄줌으로써 동화 속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작업. 그는 여기에 아라비안나이트, 천일야화를 접목해서 모두 1,001명의 중국인을 카셀에 초대할 것이다. 그는 먼저 자신의 블로그에 여행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① Yiso Bahc, Bakangse, 2002  
 ② Ai Weiwei, Fairytale Project, 2007  
 ③ Ai Weiwei, Fairytale Project, 2007

그가 초대하려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으며, 외국어를 할 줄 모르고, 자신의 현실에서 간절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그 결과 농부와 학생, 노동자, 록커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선발됐고, 그 가운데는 호적조차 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작가의 동화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평생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여권발급에서부터 비행기 표, 숙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은 주최측과 한 기업의 후원으로 이뤄졌고, 중국인 1,001명은 카셀 도큐멘타가 열리는 기간 동안 모두 다섯 차례로 나눠서 카셀에 다녀갔다.

이 작품은 해외여행이 꿈인 사람들의 꿈을 이뤘다는 의미 외에도 그들 자체가 예술의 일부가 되고, 난생 처음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미술 작품들을 보았으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카셀의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작가는 이런 부분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을 테고, 예술작품이나 돈, 상품은 국경을 쉽게 넘지만, 사람만큼 국경을 넘기 힘든 대상이 없다는 자각. 그 중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이면 더더욱 힘들다는 사실이 예술의 공간적 한계를 없애려고 노력해온 작가에게 이런 작업을 구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들 작가들이 보여준 예술과 일상의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나드려는 노력은 우리 인간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온 시·공간의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곧 우리의 삶 자체가 여행이라는 것을, 따라서 낯선 일에 관대해지는 여행처럼 나와 다른 것들에 조금은 관대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 **AF**



# 오디션에 도전하자!



가수를 꿈꾸던 군인이 있다. 그는 마지막 휴가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예선에 출연, 합격한다. 제대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본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본선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진다. 그때 이 군인은 부대 안에 있었다. 그러자 군인은 제대를 나올 앞두고 특별휴가를 따내기 위해 특별훈련에 참여한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군인이라도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1년 내내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방영된 m.net <슈퍼스타 K>를 시작으로 올해는 MBC <위대한 탄생>과 SBS <일요일이 좋다>의 'K팝스타'가 방영 중이고, 최근에는 m.net <보이스 코리아>와 JTBC <메이드 인 유>가 방영을 시작했으며, 곧 tvN <슈퍼 디바>도 시작된다.

오디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슈퍼스타 K>와 <위대한 탄생>이 기존 기획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수 지망생들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이미지라면, 'K팝스타'는 대형 기획사들이 모여 최고의 스타감을 찾아낸다. <보이스 코리아>는 심사위원들이 무대를 등지고 앉아 오직 출연자들의 노래로만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슈퍼 디바>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군인들도 휴가를 이용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경의 경우, 이미 <슈퍼스타 K>와 'K팝스타' 등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0년 <슈퍼스타 K>가 허각과 존박 등을 탄생시키며 화제를 모을 당시만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정말로 가수의 꿈이 절실한 사람들, 오랫동안 가수를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도전해볼 수 있는 일상의 이벤트가 됐다. 문자 그대로 생활의 일부가 된 셈이다. 'K팝스타'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거 출연하기도 했고, <슈퍼스타 K>에는 노년의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나와 걸그룹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요즘에는 외국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경우도 생긴다. <위대한 탄생>을 통해 화제의 인물이 된 세인은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이다. 그저 한국 노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영화 <댄싱퀸>에서 주부인 엄정화가 <슈퍼스타 K>에 도전하는 장면은 요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익숙하게 자리 잡았는지 보여준다. <슈퍼스타 K> 하나만 해도 지원자가 130만 명이 넘었으니, 온 국민이 추억 삼아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번씩 출연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놀랍지 않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음악학원에 '오디션 프로그램 특강반'이 생기고, '오디션 프로그램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광고가 나오기도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유럽에도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 나라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빨리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것은 유례가 없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 모든 한국인들에게 각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가수의 기회를 꿈꾸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을 것이다. 또한 TV 프로그램에 한 번 나가서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사람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한국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 대중의 관심을 얻을 계기만 생기면 순식간에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인터넷 시대에는 블로그, 미니홈피, 그리고 최근의 SNS 등을 통해 한 사람의 행동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내 꿈을 이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을 온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대국민 문자투표' 같은 말로 '국민'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 국민이 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쇼. 그만큼 출연자들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쇼라는 것 자체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더 보게 만들고,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예나 지금이나 스타가 되기는 어렵다. 우연찮게 잠깐 TV에 잡히는 게 아니면 TV에 출연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 몇 분만이라도 나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K팝스타'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가수지망생 김수환은 노래 한 곡으로 보아, 양현석, 박진영이라는 가요계의 실력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라는 옛 동요의 가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현실이 된 셈이다.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수환과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했던 것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그것도 1년에 십여 차례 가깝게 생기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나도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은 출연하는 순간부터 타인과 경쟁해야 한다. 그래서 경쟁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출연자의 인생이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덤이 될 수 있다.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등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출연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 번쯤은 TV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도전하는 것은 다들 마음속에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 제대를 앞둔 군인이라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원서를 내보는 건 어떨까. 제대 기념으로 말이다. 떨어져도 추억 하나 얻는 것 말고 손해 볼 것도 없지 않은가.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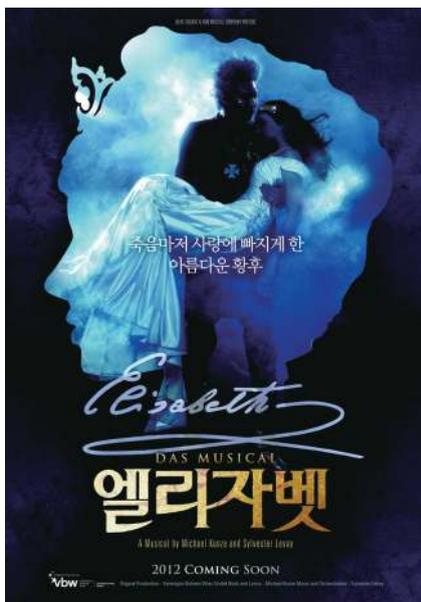
**죽음마저 사랑에 빠지게 한 황후,  
뮤지컬 <엘리자벳>**

모두가 동경하고 사랑했던 황후 엘리자벳. 그녀의 인생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흥망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을 얻었으며, 현재는 오스트리아의 어디에서라도 그녀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황실의 여인답지 않게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유럽전역을 떠돌아 솔한 일화를 남긴 덕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어 왔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화려한 줄거리만큼이나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특히 무대미술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여름휴가를 위한 궁전에 1,400여 개가 넘는 방이 있었을 만큼 성대했던 황가 합스부르크의 호화로운 모습을 무대 위에 재현하였으며, 이중 회전무대와 어우러져 웅장한 효과를 나타내는 3개의 리프트, 곳곳에서 보여지는 특수효과, 기발한 소품 등으로 보는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 효과 외에 다양한 안무도 큰 볼거리이다. 유럽 특유의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음악과 어우러진 다양한 군무는 관객들에게 지루할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48명의 출연 배우들이 모두 발레레슨을 따로 받았을 만큼 안무와 동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승우에 이은 뮤지컬계의 보증수표 JYJ의 김준수와 송창의, 옥주현 등이 출연한다.

- 기간 : 5월 13일까지
- 장소 :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가격 : R 10만 / S 8만 / A 5만 / B 3만
- 홈페이지 : www.musicaelisabeth.com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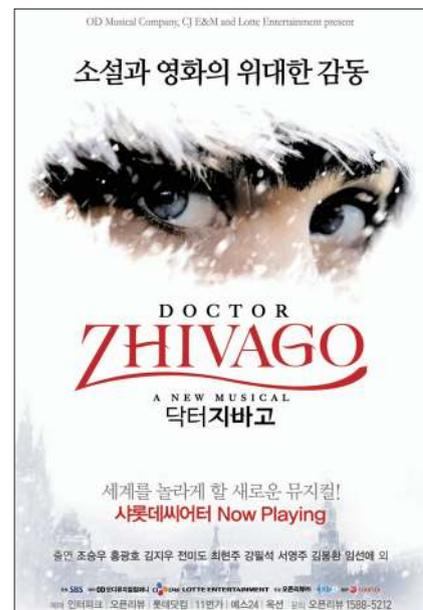
**소설과 영화의 위대한 감동,  
뮤지컬 <닥터지바고>**

지난해 호주에서 89.7%의 유료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월드 프리미어를 가졌던 뮤지컬 <닥터지바고>가 한국에서 초연된다. 특히 뮤지컬 <닥터지바고>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한국 공연 제작이 결정되면서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영화 속에서 오마샤리프가 열연한 유리지바고 역은 국내 남자 배우들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캐릭터. 첫 번째 지바고는 배우 조승우가 맡았다.

뮤지컬 <닥터지바고>의 원작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동명 장편 소설로 한 남자의 로맨스 대 서사극이다. 1956년 파스테르나크는 주요 모스크바 주간지에 소설 '닥터지바고'를 제출하지만, 고국에서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됐다. 작가 파스테르나크가 이 작품으로 다음 해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소련 작가동맹에서 제명되는 등 소련 내에서 큰 반대가 일어났고, 결국 그가 노벨상 수상을 거부해 더 유명세를 탔다.

한편 뮤지컬 <닥터지바고>는 소설과 영화의 감동을 무대로 옮겨온 작품이다. 원작이 가지는 웅장하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 간의 얽혀있는 사회적 구조를 뮤지컬로 실현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팀과 각국의 프로듀서들은 다양한 시도를 거쳐 세계의 감동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3월 눈 내리는 무대에서 러시아 혁명의 로맨스를 만나보자.

- 기간 : 6월 3일까지
- 장소 : 서울 샤롯데씨어터
- 가격 : R 11만 / S 9만 / A 7만원
- 홈페이지 : www.doctorzhivago.co.kr



# Opinion

독자기고 하늘과 공군사랑 40년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는 한

Health Diary 비만관리, 건강한 공군인의 시작!

책마을 이야기, 자연과 인간의 공통점

# 하늘과 공군사랑 40년

글. 4급 정성화 | 제18전투비행단 비행교수, 소설가

1972년 2월 1일 오전 8시, 서울의 날씨는 차갑지만 더없이 맑고 화창했다. 당시 대방동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강당 안은 장차 조국영공 수호의 불사조가 되겠노라 청운의 꿈을 품은 160명의 젊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틈에 짧은 스포츠형 머리, 검은 교복 상·하의로 감싼 중간키, 마른 몸의 필자도 섞여 있었다. 그 때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그 중 몇 가지 일은 결코 잊을 수 없기에 적어 보려고 한다.

4년간의 힘든 생도생활을 마칠쯤, 꿈에도 그리던 비행훈련에 입과했다. 1년 6개월 동안의 고된 학생조종사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전투조종사가 되던 날, 우리 모두는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즐거워했다. 그 후, 24년 동안의 전투조종사 생활과 10년 동안의 비행교수 생활은 보람과 긍지 그리고 기쁨의 연속이었기에 세월이 쏠살같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다.

‘전투조종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수십 톤에 달하는 전투기를 몰고 창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마치 솔개가 지상의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내려가듯 지상의 표적을 향해 기수를 급강하시켜 폭탄을 투하, 표적에 명중시켰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공중에서 적기와 조우했을 때를 가정한 공중전 투기동은 온몸의 세포를 즐라매어 싹뿍줄까지 붉어지게 했다.

숨쉬기조차 어려워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져도 성공적으로 공대공 무장을 발사한 순간, 느껴지는 짜릿함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실제 비상출격을 해 모든 무장 스위치를 켜고 미식별기로 접근하다가, “적기가 기수를 돌려 달아나고 있다.”는 관제사의 말을 듣게 되면, 임무를 성공했다는 성취감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마저도 느끼곤 했다. 이렇게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때문에 적이 감히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도발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또한 기억에 남는 각별한 추억들이 있다. 태어나서 처음 실시하는 초단독 비행에서 활주로를 힘차게 밀어 제치고 창공으로 솟구쳐 올랐을 때 느꼈던 환희의 순간. 새해 첫날 동해안의 일출을 제트엔진의 굉음소리로 가른 후, 초계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했을 때 드는 뿌듯한 마음. 야간비행 시, 수없이 많은 보석을 박아 놓은 듯한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녔던 기억. 구름 속을 비행할 때 비행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자세비행에 집중했던 순간들. 비행교수 시절 학생들을 첫 단독비행에 내보내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순간들. 이 모든 장면들이 내 가슴속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롱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나를 있게 해 준 많은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사관학교와 비행교육대대 교관님들, 동고동락했던 동기생과 선·후배 조종사,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수고해 주셨던 정비사, 관제사, 그리고 모든 지원요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러나 임무완수를 위해 매진하다 보니, 주위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베품에 인색했는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회고해보면, 생도시절 은사님의 가르침대로 ‘국가와 공군에 충성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을 명심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내가 몸담고 살아온 하늘과 공군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하늘과 공군에 몸담고 살기를 40년. ‘사랑하였더니, 하늘과 공군은 나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 **AF**



#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는 한



글. 이민영 | 제18전투비행단 112대대

저는 조종사의 아내도 친구도 형제도 아닙니다. 전투비행대대 휴게실에서 식사를 못한 조종사들에게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요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과를 준비해주는 게 저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잘 것 없는 일거리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떤 역대 연봉자의 일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제 이미지는 어느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나이의 로망', '멋과 낭만의 빨간마후라' 정도였지요. 하지만 여기서 일한 2년여의 기간 동안 공군 조종사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종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분들의 아내보다도 친구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 2년 동안 저는 두 번의 비행사고를 목도했습니다. 순직 조종사의 할머니가 손자의 영정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 쓰러진 미망인을 보며 뒤돌아 울음을 삼키는 동료 조종사들의 모습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조종사 분에게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동료 조종사의 비행사고를 봤는데 비행 나가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요. 두려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조종사 생활은 끝이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시고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 그 조종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뒷모습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전투비행대대에서는 가슴에 담고 싶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흘릴 수 있는 모든 땀을 하늘에 쏟아내고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모습. 등짝이 흥건히 젖은 비행복과 마스크 자국 움푹 패인 그분들의 얼굴. 책상에 앉아 비행연구에 골몰하는 진지한 표정. 신참 조종사가 비행이 뜻대로 안됐다고 애태우며 입에 문 담배. 승급이나 수상 등의 좋은 일이 있을 때 한턱 쏘겠다며 세차게 흔들 어대는 골든벨. 주말에 직감서는 병사들 주겠다며 치킨 두 마리를 사들고 들어오는 조종사의 환한 웃음. 비행대대 견학 온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 앞에서 G슈트와 NVG를 설명해주는 친절한 목소리. 병사들과 함께 대대 앞의 눈을 치우다말고 눈덩이를 뭉쳐 이글루를 만들던 개구쟁이 같은 손. 저 때문에 고마울 때가 많으며 학생들처럼 써준 롤링페이퍼. 그걸 받고 너무 고마워 평평 울어버린 못난 제 모습까지.

그분들은 용사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랑스런 아들이고 따뜻한 남편이고 자애로운 아빠였습니다. 부모님의 빛을 거의 갇아간다고 흐뭇해하고, 처가에 LED TV를 사드렸다고 뿌듯해하고, 어머니 편찮으시다는 소리에 목포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고, 일곱 살 딸의 그림을 휴대폰으로 찍어와 여기 저기 자랑하고, 비상대기 근무 때문에 몇 주째 애인을 못 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그런 모습들이 더 없이 아름답고 몽클하게 다가옵니다. 이삼십 대의 한창 젊은 나이.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해보고 싶은 일도 무수히 많은 그 때에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기 위해 고된 훈련과 위험을 무릅쓰는 사나이들. 그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값진 보배들입니다.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 멋진 보배들에게 차나일지라도 편안함과 미소를 선사해줄 수 있으니까요. 훗날 여기를 떠나더라도 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아왔던 그 멋진 사나이들이 좁은 조종석 속에서 땀 흘리며 몰아쉬는 거친 호흡 소리가 저 하늘 어딘가를 채우고 있을 것이니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는 한. **AF**



# 비만관리, 건강한 공군인의 시작!



2012년 입춘을 훌쩍 넘어 새로움을 알리는 봄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운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지요. 겨울 동안 갑작스레 불어난 체중으로 몸을 움직여 보지만 귀찮고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만 있다가는 어느새 과체중, 비만이 될지 모르니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비만이 각종 생활습관병의 원인이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혈압, 고지방혈증, 지방간, 심장질환 등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죠. 최근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군 장병 중 14~22% 정도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이 군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장병의 신체상태는 전투력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체중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Health Diary〉는 비만에 흔히 동반되는 고지방혈증 및 지방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고지방혈증이란?

고지방혈증이란 혈액에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함유된 상태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대표적인 혈중지방으로 각종 호르몬의 원료이자, 생물세포의 세포막 구성성분으로 인체 내 적정량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다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떠다닐 경우, 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는 다른 지방성분으로 이 역시 혈관질환의 원인인자로 꼽힙니다. 고지방혈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물질들이 혈관벽에 침착,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혈관내경이 좁아져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좁아진 혈관은 향후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과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 고지방혈증 관리

정상적인 성인의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정상 : 130~220mg/dl)는 평균 180~190mg/dl 정도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혈중의 지방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의 섭취를 줄임과 동시에 절제된 식사습관, 운동으로 체내의 지방을 소모하는 것이 필요 한데,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4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지방혈 증 수치는 쉽게 감소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1~2개월 이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 니다. 생활요법으로 수치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물의 효과 또한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성급하게 약물치료를 하는 것보 다는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습관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합니다.

### 지방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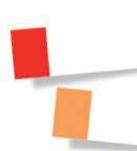
지방간이란 간에 지방성분이 정상적인 양보다 많이 축적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는 대부분 복부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됩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비만과 과다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기타 원인으로는 당뇨병, 단백질 섭 취부족, 그리고 간독성이 있는 약물사용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기 능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성 간염' 과 심하면 '간경화' 까지 유발합니 다. 비만에 의한 초기 지방간은 간기능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꾸준 히 진행될 경우에는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지방간 관리

지방간은 적극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섭취와 무관한 경미한 지방간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지방의 축적정도가 간기능 이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기능 검사상에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이상의 조치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알코올의 섭취가 지속될 경우 지방 성 감염과 간기능의 지속적인 악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주 내지는 절주가 요구됩니다. 체지방이 과다해 생긴 지방간의 경우, 체중감량을 통한 체지방 조절 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간 기능의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니, 평소 비만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 니다.

### 봄을 맞이하여

봄에는 움츠렸던 몸을 추스르고, 겨울에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운동을 시 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겨울 동안 굳어 있던 근육이 나 힘줄, 인대 등에 부상을 입기 쉽고, 심혈관이나 호흡기계에 부담이 됩니다. 무 리 없이 봄철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운동이든 모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워밍업과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 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공군 식구들 모두 봄을 즐기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습관을 통해 비만관리에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F**



#### 〈고지방혈증 및 지방간을 피하기 위한 식생활습관 권장〉

1. 술을 줄이십시오.
2. 과다한 당질(밥, 빵, 국수, 과자류, 설탕 등) 섭취를 줄이십시오.
3. 기름진 음식(튀김, 전, 중국 음식 등)을 피하십시오.
4. 과식을 피하고 균형된 식사를 하십시오.
5.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 이야기, 자연과 인간의 공통점

그 어느 해보다 시리고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합니다. 마치 죽어 있는 듯이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되자 제 향기를 뽐내며 푸릇푸릇 돌아나는 각종 푸성귀들과 북풍한설을 견뎌내고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들을 보며 해마다 맞이하는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또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도 새봄을 맞으며 자연이 속삭이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연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이 들려주는 잔잔하고 고요한 이야기들보다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솔깃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설렘과 감동 같은 매력적인 요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연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제프 H. 라이히홀프 저, 박병화 역, 이랑, 2012. 1)에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자연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진화와 동·식물들의 생태에는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와 같은 자연의 역사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각종 선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는 이야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역시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구전동화에서부터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각종 게시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읽고, 듣고, 전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이른바 매력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요소들이 사람들을 깊이 빠져들게 하는지 「이야기의 힘」(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황금물고기, 2011. 9)에서 그 비밀을 밝혀줍니다.

이처럼 자연과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중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으며 그 자체가 진실이기에 더 이상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우리 인간의 이야기 역시 진실할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도 2012년 3월, 새봄을 맞이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색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진실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봄을 만끽하시리라 믿습니다. **AF**



# 월간 「공군」 3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3월 30일까지

1. 미 공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이 인물은?
2. 2010년 튀니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튀니지를 대표하는 꽃으로 명명된 혁명은 무엇인가?
3. 18세기 유럽의 귀족가문에서 결혼을 앞둔 신랑이 은으로 만든 장미를 신부에게 예물로 전달하는 풍습은?

## 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줄리오 두헤 2. 오페레타 3. 어른이  
**퀴즈 당첨자** 충북 청원군 **김동훈** ● 경기 성남시 **권찬혁** ● 강원 강릉시 **김효정**  
경기 평택시 **박윤수** ● 울산 북 구 **김휘곤** ● 충남 계룡시 **양준영**

##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장교임관선서 中 -